

노인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Influential Factors on the Change i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Longitudinal Analysis using a Latent Growth Model

김진훈

세모바퀴노인복지센터

Jin-hun Kim(jinhun@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노인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를 노인 가구라고 정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는 고령화 연구패널자료(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KLoSA)의 2, 3, 4차 자료를 활용 했으며, 65세 이상 3차시 모두 설문에 응답한 677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의 종단적 연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별 만족도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부 모형을 통해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의 종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유형, 주택소유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유형, 생활수준 기대감 등이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가구의 자아실현 기회를 높여 노년 시대의 삶의 만족도 향상이 필요하며, 정책적 접근에 있어 다양한 유형을 고려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함 등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노인 가구 | 삶의 만족도 | 종단연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change i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In this study, single and couple elderly households were defined as elderly households and the 2nd, 3rd, and 4th data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KLoSA) provid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EIS) were used. And 677 respondents aged 65 and over who had replied to all 3 sessions were included in the final subject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tial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by the type of elderly households according to consumption pattern and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ere common influential factors such as house owning statu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specific types such as expectancy of standard of living. In addition, in the longitudinal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individual satisfaction level was confirmed to reduce with time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ongitudinal change in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was analyzed through the conditional model of a latent growth model.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household type, house owning statu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influenced the initial value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while household type and expectancy of living standard influenced the change rate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old age by increasing the opportunity for self-realization of elderly households and also policy approach should be made selectively taking various types into consideration.

■ keyword : | Elderly Households | Life Satisfaction | Longitudinal Analysis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인구고령화 현상,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가구형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점차 핵가족화 1인가구화 되어가고 있다[1]. 통계청 자료[2]에 의하면, 2035년 57.0%가 부부가구이거나 1인가구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이거나 노인 1가구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전체가구의 28.5%에 해당한다. 인구고령화와 노인가구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지만,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예측은 한계가 있어,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평균수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건강수명이라고 하지만, 건강수명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삶의 만족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에 관한 것이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성공적으로 노화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3]. 그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 정도를 살펴보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연구에 의한 결과 도출로서, 연구 시점에서의 관계를 제시할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정도를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기존의 연구들은 노인 전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삶의 만족을 살펴보고 있어, 노인가구의 증가 등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구별하여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반영하여,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연구의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65세 이상 노인가구노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와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통해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증적 제언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 인구 현황 및 특성

국내 노인을 주제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주제 및 함의에 따라 노인의 나이를 다양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고용관련 연구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55세를 기준으로 하며, 경제활동관련, 연금수령관련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기준이 되는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의 기준 나이가 되는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와 같은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이면서, 사회복지적 함의 도출을 위해 65세를 노인의 기준 나이로 설정하였다.

통계청 자료[4]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0년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7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추계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5]의 자료에 의하면, 65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여명은 2008년 전체 19.2년에서 2012년 20.1년으로 약 1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엔 20.9년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기대여명의 증가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고 있지만, 건강 요소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은 연령의 증가로 노화에 직면하게 되고, 신체기능의 노화로 건강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노인에게 건강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죽음 앞에서도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 낼 필요성이 있다. 유재남[3]은 성공적인 노화는 삶의 만족도 수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2. 노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노인 가구에 대한 정의도 연구 방향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유형화 되고 있다. 노인 가구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은 노인독거가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6], 노인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모두가 65세 이상으로 할 것인가?,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모든 가구를 노인가구라 할 것인가?의 유무 등에 따라 유형화 되고 있다[1][7-9]. 임완섭[10]의 연구에서는 노인 가구를 [표 1] 처럼 분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 1인가구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고 있는 노인부부 가구를 노인가구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 노인가구 유형분류

유형	분류 기준	
노인 1인 가구	가구원수 1인 & 가구원 연령이 6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	가구원수 2인 & 부부 & 가구원중 적어도 한 명이 65세 이상인 경우	
기타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 제외 & 노인가구주 + 동거가족
	비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 제외 & 비노인가구주 + 노인 + 비노인 동거가족, 또는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 제외 & 비노인가구주 + 노인

자료: 임완섭[10]

노인 가구의 유형별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으며, 2008년 13.4%의 노인 가구는 본 연구의 중단 기간인 2012년에는 16%로 2.6%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2035년 전체가구의 28.5%까지 많아 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2].

표 2. 노인가구 유형분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노인 1인 가구	7.4%	7.2%	6.9%	7.6%	8.7%
노인부부가구	6.0%	6.3%	6.2%	6.7%	7.3%
합계	13.4%	13.5%	13.1%	14.3%	16.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5)

3. 노인 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

노인과 관련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몇 가지 관점에서 구분되어진다. 첫째, 삶의 만족도 수준을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 평가했는지,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인식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평가 했는지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조사 시점에 따라 조사 시점의 삶

의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는 횡단연구인지, 삶의 만족도 수준의 변화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종단연구인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연구 방향이 다양하다는 것은 삶의 만족도가 다차원적인 영역으로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과거의 삶의 모습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 관련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인구학적요인[1][11-16], 경제적요인[1][12-15], 건강요인[1][11-16],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요인[1][13]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순미, 손지아, 배성우[11]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 연구를 통해, 연령, 교육,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혔다. 반면, 노인의 성별과 결혼 상태의 변화는 노인의 전반적 생활만족도 변화 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영, 정세은[12]의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고,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총가계 소득이 많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노인가구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종교와 소득수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구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인 경우,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고소득 가구에서는 취업 상태인 경우,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전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월, 조향숙[13]은 중·고령자 단독가구의 삶의 만족도와 재정, 건강, 심리 상태와의 관계를 통해, 남성보다 여성이, 재정만족도가 높을수록, 건강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만족도가 안정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훈, 고보선[1]은 노인가구 소비유형별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에서 노인가구의 유형을 5개 유형으로 유형화 했으며, 각 유형별 만족도 수준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함을 밝혔다. ‘낮은 식비중심 소비형’에 대해서는 학력, 주택소유, 건강상태로 인한

활동제한, 주관적 건강상태, 생활수준 기대감 등 5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간 식비중심소비형’에 대해서는 주택소유, 건강상태로 인한 활동제한, 주관적 건강상태, 생활수준 기대감 등 4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높은 식비중심소비형’에 대해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만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저축중심소비형’에 대해서는 가계총소득, 생활수준 기대감, 건강상태로 인한 활동제한 등 3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보건의료중심소비형’에 대해서는 건강상태로 인한 활동제한과 주택소유 등 두 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영[15]의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초기값은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 초기값은 배우자 있는 노인이 배우자 없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초기값은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노인이 경제활동상태에 있지 않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준수, 조승호[16]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건강관련 등의 변인들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구소득, 건강상태, 기능적 능력, 인지기능, 우울감 등이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동일한 변수를 사용한 연구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집단의 범위, 연구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이라 유추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노인가구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노인가구의 범위를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로 설정하고, 연구방법을 종단연구로 진행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경험적 자료와 결과를 근거로 한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증적 제언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노인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어떤 궤적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초기 요인은 무엇인가?

1.2 연구모형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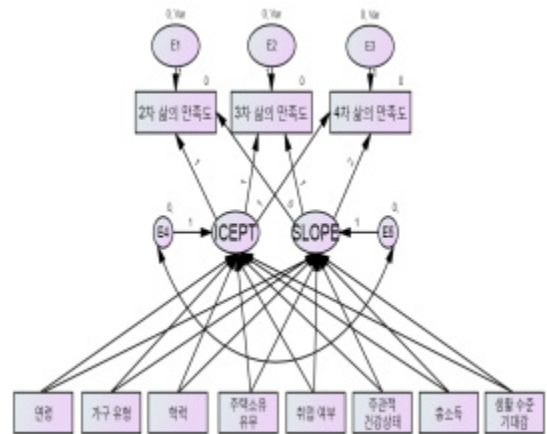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2. 조사자료 및 조사대상

2.1 조사자료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를 사용하였다. KLoSA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0,254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짝수년도에 실시되고 있으며,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사망 등 총 8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다. 패널 자료는 동일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을 두고 동일문항을 반복적으로 조사한 자료로 구성되기 때문에 종단연구

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차 년도를 기준 시점으로 하여 3차, 4차 년도의 변화 궤적을 살펴 보았다.

2.2 조사대상

본 연구는 연구문제의 실증분석을 위해 KLoSA의 2차, 3차, 4차 년도의 자료를 활용했으며, 조사대상은 연구목적에 따라 65세 이상 1인가구 및 부부가구로, 3차 년도 설문에 모두 응답한 677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 선정과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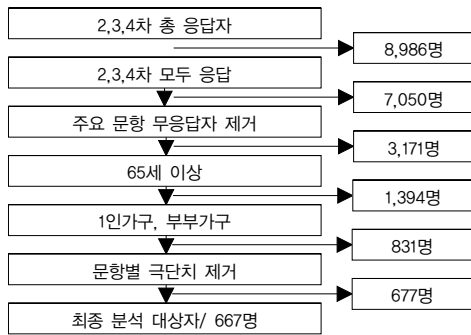


그림 2. 조사대상 추출 과정

3. 측정변수 및 자료분석 방법

3.1 측정변수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변수 설정은 [표 3]과 같다. 독립변수로는 연령, 가구유형, 학력, 주택소유 유무, 취업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가계 총소득, 생활수준 기대감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변수로는 “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__님의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의 2~4차까지의 측정값을 활용하였으며, 측정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3. 분석 내용 및 해당변수

구분	변수	변수 조정 및 설명
독립 변수	연령	2008년 2차 조사 당시 만 나이
	가구 유형	1=노인부부가구, 0=노인 1인가구
	학력	1=고졸이상, 0=고졸미만
	주택소유 유무	1=자가, 0=전세, 월세 등
	취업여부	1=취업, 0=미취업
	주관적 건강상태	1=매우 나쁨, 2=나쁜편, 3=보통, 4=좋은편, 5=매우 좋음
	가계총소득	지난해 월소득(만원)
종속 변수	생활수준 기대감	0점에서 100점 사이 10점 간격으로 응답
	삶의 만족도	0점에서 100점 사이 10점 간격으로 응답

3.2 자료분석 방법

분석 대상자의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궤적이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초기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반복 측정된 관찰치로부터 변화의 초기값(Intercept)과 변화율(Slope)을 추정하여 평균적인 변화 궤적(Trajectory)을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면서 변화내 개인차를 설명 할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 모형 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했으며, 모형 평가 방법으로 CFI, TLI, RMSEA 지수를 사용하였다. χ^2 통계량은 표본수에 민감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조 값으로만 활용하였으며, CFI와 TL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이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18].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위해 SPSS 21.0V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잠재성장모형은 AMOS 20.0V를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77)

구분	변수	평균(표준편차)/빈도(%)	
독립 변수	연령	73.098(5.351)	
	가구 유형	노인부부	262(38.700)
		노인 1인가구	415(61.300)
	학력	고졸이상	64(9.500)
		고졸미만	613(90.500)
	주택소유유무	자가	530(78.300)
		전세, 월세 등	147(21.700)
	취업여부	취업	150(22.200)
		미취업	527(77.800)
		주관적 건강상태	2.649(.818)
	가계총소득	48,156(44,825)	
	생활수준 기대감	46,030(23,753)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55,096(19,54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2008년 2차 조사 당시 연령 평균은 73.098(5.351)세이며, 가구유형은 노인부부가구 262(38.7)명, 노인 1인가구 415(61.3)명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상 64(9.5%)명, 고졸미만 613(90.5%)명으로 다수가 고졸미만의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소유 유무에서 자가 소유 530(78.3%)명, 전세·월세 등 147(21.7%)명으로 다수의 노인가구가 주택을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취업 150(22.2%)명, 미취업 527(77.8%)명으로 미취업자가 많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나쁘다 1점, 매우좋다 5점인 5점 리커트척도에서 전체 산술 평균 2.649(.818)점으로 주관적으로 보통 이하의 건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총소득은 월 48,156(44,82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 기대감은 100점 기준에서 46,030(23,753)점으로 생활수준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중간 수준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종속 변수로 설정한 삶의 만족도는 100점 기준에 55,096(19,541)점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 수준이 척도의 평균값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삶의 만족도 분석 모형 및 궤적

2.1 삶의 만족도 무조건부 모형

노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의 변화 추이를 추정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수준의 종단 자료를 투입하여 무조건부 모형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비교를 통해 분석에 적합한 모형을 최종 선택하였다.

무변화모형은 종단 자료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일정한 패턴 없이, '증가하다 감소' 또는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며, 선형변화모형은 종단 자료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일정한 형태로, 꾸준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으로 측정모형은 [그림 3]과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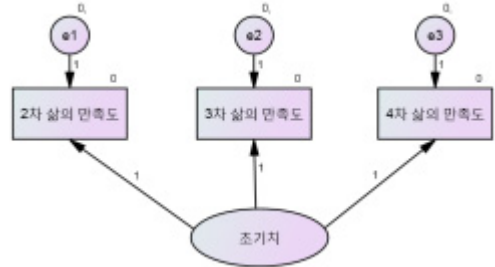


그림 3. 무변화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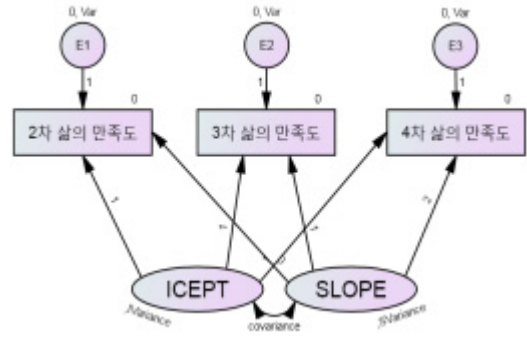


그림 4. 선형변화모형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은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모형에 따른 모형 적합도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무조건부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무변화	10,901(4)	.028	.988	.984	.051
선형 변화	1,054(3)	.788	1,004	1,000	.000

종단 자료에 의한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에 대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분석 결과 TLI, CFI, RMSEA 지수에서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가 무변화모형 보다 좋은 것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의 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채택된 선형변화 모형의 삶의 만족도 평균과 변화 추정치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 추정치

모형	선형 변화	
	평균	분산
초기치	54.948***	200.001***
변화율	-1.182**	12.242**

* p<.05, ** p<.01, *** p<.001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 추정치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평균은 54.95, 분산은 200.00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P<.001), 노인가구의 2차년도 삶의 만족도 수준이 동질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나타났다. 즉 2008년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노인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전체 평균값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변화율의 평균은 -1.182, 분산은 12.242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P<.01), 2차 조사에서 삶의 만족도가 3차, 4차 조사시로 갈수록 각각 -1.182점씩 낮

아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분산의 값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의 변화도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에서 산출된 변화율 값만으로는 집단의 변화 유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며, 설명을 위해서 개인간의 차이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조건부 모형을 통해서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을 설명하는 예측변수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2 삶의 만족도 조건부 모형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의 무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를 통해 조건부 모형의 적용이 가능함을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처럼 초기 값과 변화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을 때 연구자는 “이러한 개인간 발달유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19].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찾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한 8개의 독립 변수를 투입하여 조건부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최종 측정모형은 [그림 5]와 같다.

모형에 따른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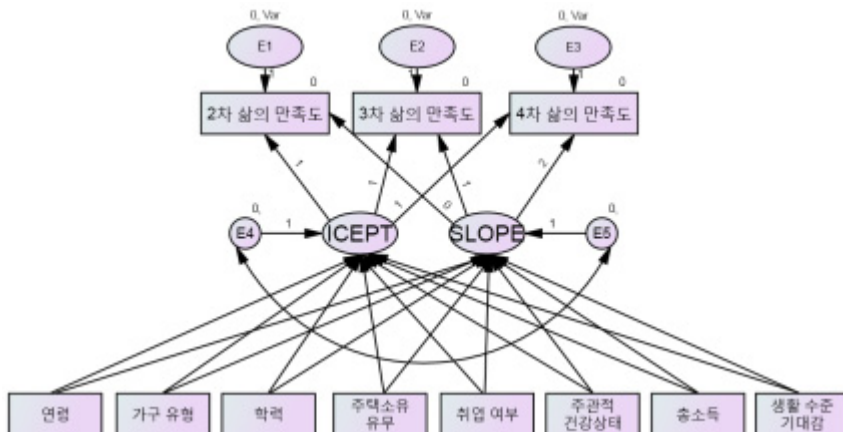


그림 5. 조건부 모형

표 7. 조건부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조건부 모형	9,616(11)	.565	1,008	1,000	.000

본 연구의 조건부 모형의 적용에서 CFI(1.000), TLI(1.008) 지수값이 모두 .90 이상이며, RMSEA(.000) 지수값이 .08보다 작게 나와 본연구의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삶의 만족도 변화 궤적 영향요인

		추정치(B)	S.E.	표준화된 추정치(β)	C.R.
연령	→ 초기	-.100	.128	-.038	-.781
	→ 변화	-.079	.076	-.121	-1.046
가구 유형	→ 초기	3,159	1,402	.109	2,254*
	→ 변화	-2,438	.832	-.339	-2,929**
학력	→ 초기	.753	2,232	.016	.337
	→ 변화	.776	1,326	.065	.585
주택소유 유무	→ 초기	11,535	1,591	.336	7,251***
	→ 변화	-1,526	.945	-.180	-1,616
취업여부	→ 초기	-1,620	1,632	-.048	-.993
	→ 변화	-.601	.969	-.071	-.621
주관적 건강상태	→ 초기	6,474	.819	.374	7,901***
	→ 변화	-.733	.487	-.171	-1,507
가계 총소득	→ 초기	.002	.001	.087	1,688
	→ 변화	.000	.001	-.012	-.098
생활수준 기대감	→ 초기	.012	.027	.020	.435
	→ 변화	.032	.016	.217	1,987*

* p<.05, ** p<.01, *** p<.001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유형($\beta=.109$, $p<.05$), 주택소유유무($\beta=.336$, $p<.001$), 주관적 건강상태($\beta=.374$, $p<.001$)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 학력, 취업 여부, 총소득, 생활수준 기대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부부가구일수록, 주택을 자가 소유 했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유형($\beta=-.339$, $p<.01$), 생활수준 기대감($\beta=.217$, $p<.05$)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노인 부부가구가 노인 1인가구보다 삶의 만족도 변화율이 크며, 생활수준 기대감이 낮을수록 변화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부모형에서 삶의 만족도 수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것과 같이 해석한다면, 노인부부가구인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만족도 수준이 노인 1인가구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노인가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큰폭으로 낮아져서 노인가구 삶의 만족도 수준의 차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연령, 학력, 주택소유 유무, 취업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가계 총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노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부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부 모형을 실시한 결과,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유형, 주택소유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유형, 생활수준 기대감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른 결과를 기존연구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에서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종단연구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한다는 Schilling[20], 김미영[15]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가구유형, 주택소유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유형을 부부가족 유무로 살펴본 유재남[3]의 종단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부부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한 박순미, 손지아, 배성우[11], 유재남[3]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유형, 생활수준 기대감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유형을 부부가족 유무로 살펴본 유재남[3]의 종단 연구결과에서 가구유형이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노인전체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는 김미영[15]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에서는 교육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노인가구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본 연구에서는 학력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1인 노인가구를 노인가구로 한정하여 연구한 정운영, 정세은[12]의 연구결과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 노인가구를 노인가구로 한정 연구에서는 종교활동,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계 총소득이 많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가구를 노인 부부가구와 노인 1인가구로 설정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종단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율에서 가구유형이 노인부부가구인지? 노인1인가구인지가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노인가구 소비유형별 삶의 만족도를 횡단연구로 살펴본 김지훈, 고보선[1]의 연구결과에서 노인가구를 소비유형에 따라 '낮은 식비중심소비형', '중간 식비중심소비형', '높은 식비중심소비형', '저축중심소비형', '보건의료중심소비형'으로 유형화 되고 있으며, 5개 유형에서 건강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단연구를 실시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횡단적 의미의 초기 값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는 변화율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 수준이 척도의 중간값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앞으로의 생활수준 기대감은 중간값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기대여명이 증가되면서, 삶의 만족도, 삶의 기대감 등의 질적인 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선에서는 이를 위해 건강수명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삶의 질과 관련된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인의 건강이 삶의 질을 100% 설명할 수 있는 영향요인이 아닌 것처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동일 기준에서 재분석하므로 보다 의미있는 요인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이론에 기초한 영향 요인에 대한 확인적 분석을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연구들을 겸하여, 노인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의 요인들을 찾아나서는 노력들을 결연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선행연구에서 노인을 모집단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연령, 학력수준 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노인가구를 모집단으로 설정 할 경우 연령, 총소득, 학력수준, 취업여부는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그동안 노인복지 정책이 노인 개인단위의 연구를 통한 정책 개입이 이루어 졌다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가구 단위의 연구를 통한 정책 개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개인 차원의 제도와 노인가구차원의 제도가 달라져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 노인가구 단위의 연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노인가구의 가구유형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가구에서 배우자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 더 큰 노인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부부가구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생활수준 기대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생활수준 기대감은 노인가구의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수준을 더욱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가구의 생활수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가구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노인의 삶이 사회적으로도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봄에 있어 초기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종단적 변화와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양적연구와 더불어 노인가구의 삶에 대한 질적인 연구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영향요인들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가구형태의 변화로 인해 통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 수준을 분석하고, 노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종단적 영향요인을 밝혔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김진훈, 고보선, “노인가구 소비유형별 삶의 만족

도 결정요인,” 노인복지학회, 제71권, 제4호, pp.477-502, 2016.

[2] 통계청,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14.

[3] 유재남, *노년기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 제적에 관한 종단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 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통계청 보도자료, 2015.

[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년*, 2016.

[6] 이혜원, *노인복지론*, 유봉출판사, 2004.

[7] 여유진,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과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40권, pp.185-219, 2012.

[8] 이주미, 김태완,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2014.

[9] 정경희, “노인부부가구의 생활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22권, pp.58-68, 2015.

[10] 임완섭, “빈곤 노인가구의 유형별 소득 및 지출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26권, pp.90-103, 2015.

[11] 박순미, 손지아, 배성우,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적 접근,”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3호, pp.1-24, 2009.

[12] 정운영, 정세은,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연구: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의 비교,” *한국노년학*, 제31권, 제4호, pp.1119-1134, 2011.

[13] 김시월, 조향숙,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8권, 제3호, 2015.

[14] 이종민,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한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위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5] 김미영,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6] 허준수, 조승호,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 인과모형 연구: 유형별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pp.673-691, 2017.
- [17] T. Duncan and S. Duncan, “An introduction to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Behavior Therapy, Vol.35, No.2, pp.333-363, 2004.
- [18] L. Hu and P.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6, No.1, pp.1-55, 1999.
- [19] 여승수, 박소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분석의 활용- 교육과정중심측정 중단 자료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13권, 제4호, pp.247-273, 2012.
- [20] O. Schilling, “Development of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another view on the ‘paradox’,”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76, pp.241-271, 2006.

저 자 소 개

김 진 훈(Jin-hun Kim)

종신회원



- 2008년 7월 ~ 현재 : 세모바퀴노인복지센터 대표
- 2008년 2월 : 탐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석사)
- 2016년 8월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이학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 콘텐츠, 장애인 재활